

月間建築情報

'80. 6. 21 ~ 8. 10.

註：本誌 発行日字를 앞당기게 됨에 따라, 이 月間建築 情報는 每月 10日로 마감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貨物터미널 3곳 新設키로—서울시 四部—新亭洞, 北部—創洞, 西北部—佛光洞에

서울시는 6월20일 늘어나는 物動量에 대비 西部·서울시는 6월20일 늘어나는 物動量에 대비 西部·北部·西北部에 3개의 貨物터미널을 新設키로 했다. 이로써 南部(瑞草洞)·東部(長安坪)와 함께 모두 5개로 늘어나게 된다.

“西部터미널”은 1일 物動量 59,500t을 취급할 수 있으며, 年末까지 준공, 堂山洞의 京仁貨物터미널을 이곳에 옮긴다. “北部터미널”은 倉洞·放鶴洞지역에, “西北部터미널”은 奮把撿·佛光洞지역에 대지(약 3만평)를 물색 하루 51,500t의 物動量을 처리할 수 있도록 建設할 계획이다.

5개의 貨物터미널이 完성되면 西部가 市 전체 物動量의 27.6%, 北部와 西北部가 각각 23.9%씩 擔當하며, 기존의 南部(74년 建設)가 15.8%, 東部가 8.8%를 承 承하게 된다.

室內裝飾案에의 進出, 관심 增大 재벌기업들 外法事業겨냥 진출 늘어

6월25일, 關連업계에 依하면, 지금까지 室內裝飾은 家具業體를 中心으로 住宅 또는 호텔 등에 국한되었으며, 자체사업의 경우 極히 美비하였으나 이제는 자체공사의 범위를 벗어나 外注事業을 겨냥한 室內裝飾業이 새로 대두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 굴지의 재벌그룹들의 D綜合商社·S綜合設計·D建築등이 그 그룹이외의 外注事業으로 室內裝飾분야를 확대하고 있으며, 住宅·家具業體를 가진 S住宅·H住宅 과 기타 新設업체들이 이분야에의 진출을 검토하고 있다 고 한다.

특히 이분야가 관심을 끌게된것은 호텔·빌딩 사업이 확대일로에 있으며, 住宅業體들이 경기침체에 따라 자가 시공범위를 탈피하고자 하고 있으며, 販促의 일환으로 전문화된 실내장식을 요구하는등 인식이 달라지고 있기 때문이다.

또 최근 가구업체 또는 建築內裝林생산업체를 가진 재벌그룹들이 관측수단으로 室內裝飾業에의 진출을 모색하고 있는것으로 알려졌다.

國民標準體位 처음으로 밝혀—工振廳 1만8천명대상 男女別 117部位 조사

工業振興庁은 국내에서 처음으로 실시한 제1회 國民標準體位 조사결과를 6월25일 발표하였다.

이번 조사는 KIST 및 서울大家政大의 협조로 각 병원과 유치원, 初中高校, 기업체, 군인, 주부등 18,013명을 대상으로, 연령별, 성별에 따라 117개 部位를 조사, 키·몸무게·가슴둘레·목둘레·허리둘레·손발크기 등을 계측, 이의 평균치수를 國民標準体位寸數로 확정하였다.

공업진흥청은 이같은 표준체위조사 결과를 토대로 生活用品 및 家具類·建築資材 등을 규격화하기 위하여 컴퓨터로 본을 만들어 보급하고, 동일품목의 호수를 전국적으로 통일시키기로 했다.

都市計劃區域內 綠地를 住居地域化

그린벨트 보호상 都市計劃區域 擴大는 피하기로

6월26일 건설부에 따르면 내년중에 실시되는 全國 市級都市의 都市計劃再整備作業에 택지부족이 심한 都市의 경우 綠地 一部를 宅地化하고, 그린벨트를 보호하기 위하여 都市計劃區域 확대는 가능한 한 피하기로 했다.

건설부는 오는 91년도를 目標年度로 전국 71개 都市에 대한 都市計劃再整備作業을 市級都市는 81년말까지, 기타 都市는 82년말까지 끝낼 方針인데, 이 기간 중 새로운 住居地域을 조성하기로 했다.

특히 住居地域 부족이 심각해질것으로 예상되는 도시는 서울·釜山·仁川·城南·富川·江陵·群山·光州·木浦·麗水등 10개 都市로, 이들 都市에 대해서는 住居地域을 대폭 확대해줄 계획이다.

建設産業의 國際化를 위한 制度補完 확정

工事契約制度개선, 技術開發 報償制度

정부는 앞으로 海外建設輸出이 勞賃이나 技術面에서 畚 限界點에 이를것으로 보고, 이의 타개책으로, 現行 工事契約制度를 대폭 보완, 技術開發補償制와 入札 下限制度 및 內訳入札制度를 실시하는 한편 建設技術의 國際化를 위해 技術用役에 대해 적정한 時間과 代價를 지급할 방침이다.

6월27일 건설부가 확정된 “建設産業의 國際化를 위한 制度補完”에 의하면, 70년대 건설사업은 技術人力의 熟練 및 低賃등에 힘입어 海外進出이 가능했으나, 80년대에는 勞賃上昇, 건설기술의 先進國水準에 미흡한 점등에 기인, 國際競争力이 한계점에 달함으로써 건설기술의 國際化를 위한 技術用役業체의 支援, 技術開發費의 補償, 工事制度補完施策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建設業체間의 과당경쟁에 따른 덤핑受注를 막기 위해 入札下限制를 실시, 기준가격 이하의 入札은 無効로 하여 最低價 落札에 따른 施工不實을 막고, 또 종래

土木工事に만 실시하는 內訳入札制를 施設工事に까지 全面擴大, 入札時 受注額算出內訳書를 반드시 제출하게 했으며, 수년간에 걸쳐 시행되는 單一工事は 分할하지않고 總額으로 入札케하여 덤핑을 방지하는 總額入札制度를 각각 실시키로 했다

또한 設計 및 施工者가 새工法이나 技術開發로 工事費를 節減할 경우 節減額의 50% 이내에서 보상비를 주는 技術補償制度를 채택키로 했으며, 用役業체의 海外進出을 권장, 터언키이 베이스에 의한 受注量을 늘리는 방안으로 金融 및 稅制支援, 海外進出準備金制度를 신설할것 등을 검토키로 했다.

건설부는 制度補完을 위한 기본방향으로일차적으로 設計 및 施工技術의 과감한 導入과 經營管理의 近代化에 두고, 先進國 業체와의 技術提携를 서두르는 한편, 技術集約工事的 設計, 施工能力을 높이기 위한 젊은 技術者들의 海外研修, 語學, 國際規格 및 國際水準의 設計示方書에 대한 教育強化, 經營管理의 電算化를 꾀하고, 現場管理制度를 적극 活用키로 했다.

單獨住宅의 多住居單位化유도, 住宅難 해소위해

財産 差等賦課, 新改案 자금을 우선지원

7월 1일 經濟企劃院이 마련한 單獨住宅의 多住居單位化 促進方案에 따르면, 이를 위해, 新策하는 單獨住宅은 가능한한 2단위이상으로 건축토록하고, 기존 單獨住宅의 改良 增築을 최대한 권장키로 했다.

즉 月貫를 내줄 수 있도록 2單位 이상 住宅으로 新·改築할 경우 住宅資金을 우선 지원하고, 財産稅를 주택의 可用住居單位에 따라 差等賦課하기로 했다.

이밖에 賃貸住宅을 늘리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住宅賃貸業을 적극 육성하고, 單獨住宅을 聯立住宅과 같이 住居單位別로 나누어 소유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기로 했다.

이같은 方案은 최소한의 투자비용으로 住宅數(住居單位數)를 확대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 나온것인데, 현재 單獨住宅을 신규주택건설의 60%를 차지하고 있다.

복잡한 建築行政을 대폭 改善—行政委

民願書類대폭축소, 처리기간단축, 規制완화

7월 2일, 行政改革委員會가 마련한 “建築關係 民願事務의 改善方案”에 따르면 建築許可時 제출하는 구비서류 13종중 불필요한 6종(대지전경사진·인감증명서·주민등록등본·입회측량도·구내통신설비설계승인필증·시멘트가공제품 소요량신고서)을 폐지하고, 또 竣工檢査때의 10종의 서류중 6종(보일러의 검사대상기기 검사증·구내통신설비공사 검사필증·시멘트가공제품 판매확인서·시멘

트가공제품 시험성과표·준공현장사진·준공확인보고서)을 폐지하기로 했다. 또 建築許可申請書에서 시공자란을 없애기로 했다.

지금까지 각 협의기관·유관과의 협의과정을 공문서로 하던것을 會議 또는 回覽協議制로 바꾸도록하고, 또 立地 심의와 美觀심의를 분리하지않고 병행 실시토록 하는 한편 그 심의대상범위를 지역에 따라 달리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法의대상물에 한정토록 했다. 이하하여 주택의 경우 4~5일을 2~3일로, 점포는 20일에서 10일로, 특수건축물은 50일에서 20일로 각각 그 處理期間을 단축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30평이상의 건축물에 대해 通信設備工事의設計承認 및 竣工檢査를 별도로 해온것을 建築許可와 竣工時에 건축과에서 일괄처리하기로 했다.

建築許可基準의 경우 △ 건축선으로부터의 후퇴거리, △ 建蔽率, △ 層數制限, △ 用途變更制限, △ 地下室面積制限, △ 停車場設置基準 등에 있어, 지금까지 法令·條例의 근거없이 행정규제로 제한하고 각 구청마다 그 기준이 다른것을 앞으로는 法令根據없는 과잉행정규제는 없애기로 했다.

또 近隣生活施設·近隣公共施設·近隣運動施設간의 用途變更를 일일이 許可制로 하던것을 앞으로 공업지역 이외의 지역에서는 申告制로 이를 완화하기로 했다.

자기 土地가 道路에 편입됐을때 地目變更節次와 費用을 건축주가 부담하게 되어 있던것을 시정하여, 앞으로는 建築課에서 竣工檢査와 동시에 地目變更에 필요한 관계서류를 地籍係에 통보, 職權 處理키로 했다.

違法建築物 단속에 있어 責任建築士의 처벌을 강화하며, 실효성없는 建築士 連帶責任制를 單獨責任制로 바꾸도록 했다.

政府工事勞賃單價, 下半期부터 20%(?)인상 市中과의 隔差를 해소키 위해

정부는 市中勞賃單價와 政府勞賃單價와의 지나친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올 下半期부터 政府勞賃單價를 20% 정도 인상할 방침이다.

7월 3일, 經濟企劃院에 의하면, 지난 上半期중 도매물가가 27%이상 오른데다가 현재 정부노임단가가 시중노임단가의 80% 수준에 머물러있어 이를 現實化하기 위해, 정부노임단가의 23.5%인상안과 15%인상안을 놓고 검토하고 있는데 20%수준에서 결정될것 같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市中과의 격차는 해소되는 셈이다.

政府勞賃單價는 지난 年初, 평균 15%를 인상하고, 地域사정에 따라 10%를 추가인상할 수 있도록 조치했기 때문에 이번에 20% 인상하면 사실상 30%를 인상하는 결

과가 된다.

三煥가무 利川工場을 준공

組立式資材 量産, 아파트도 건설

三煥企業이 내외자 50억원을 투입하고 프랑스의 레이몽 가무社의 技術導入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三煥가무의 利川工場이 7월 4일 준공되었다.

동사에 의하면 앞으로 매일 10~25평형 住宅자재 4~6가구분을 본격적으로 생산 공급하게 되며, 80년중에 12층과 5층의 아파트 1200~1500가구분을 생산하고, 81년부터는 아파트 외에 주택은 물론 학교·오피스 빌딩용도 생산할 계획이다. 동사가 채택하고있는 가무工法은 배터리 몰드(battery-mold)식이다.

서울外廓 100km까지 首都圈化...80년대 基本案

5개地域으로 區分 개발 / 鐵道 電鐵化 / 2개 都心高速道路건설 / 新葛에 대규모流通센터 건설

정부는 서울시와 서울 주변의 首都圈을 균형있게 발전시키기 위해 80년대에 추진한 “首都圈整備基本計劃案”을 구상하고 있다. 7월 7일 관계당국에 의하면 建設交通등 5개 관련부처와 서울시가 구상하고있는 이案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서울人口를 再配置하고 都心機能을 분산시켜 서울의 비대성장을 막는데 주요점을 두고있는 이 計劃案은 서울시 外廓 40km 이내의 中小都市가 서울시人口팽창 요인으로 작용했던 점을 중요시하고, 平澤·驪川·安城 등 12개 都市가 포함된 서울周邊 100km 이내 지역을 首都圈 都市整備計劃案에 포함시켜, 이를 5개 지역으로 구분, 서울都心機能을 분산시키기로 했다.

제 1 지역...서울江北과 議政府市·高陽群元堂邑·楊州郡九里邑등이 포함된 이지역은, 공장·산업시설등을 다룬 지역으로 옮기는 “移轉促進地域”으로.

제 2 지역...서울江南과 水原·仁川·城南등이 포함되는 이지역은 “開發制限地域”으로.

제 3 지역...龍仁·利川·安城·平澤등이 포함된 이 지역은 공장과 산업시설을 유치하는 “開發誘導地域”으로.

제 4 지역...驪州·楊平·加平·淸平等 漢江上流인, 이 지역은 “環境保護地域”으로.

제 5 지역...漣川 東豆川 汶山 江華島등이 포함된 이 지역은 “開發留保地域”으로.

이 계획은 82~91년 사이에 단계적으로 실시, 91년의 서울人口가 1,000만선에서 900만선으로 억제되는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정부는 또 서울都心の車輛通行速度를 고속화하기 위해 安國洞~瑞草洞(11km), 中央廳~果川(20km)에 自動車專用 都市高速道路를 건설할 방침이다.

이밖에 시 외곽 交通高速化를 위해 仁川~梧柳洞驛~城南(57km), 半月~水原(20km), 신설될 第2空港과 第2京仁高速道路間(16km)에 高速道路를 건설할 계획이다.

또 정부는 서울市地下鐵本都를 흡수한 首都圈電鐵公社를 발족시켜 水原~驪州(62km), 城南~利川(36km), 城南~龍仁(25km), 驪州~原州(10km), 富川~第2空港(17km), 을 單線 電鐵化하고,

議政府~城北, 龍山~陵谷, 清涼里~八堂, 城北~退溪院의 4개 구간 鐵道 63km를 複線 電鐵化하기로 했다.

이밖에 首都圈 物動量이 계속 증가될 것에 대비하여, 大規模 流通센터를 京畿道 龍仁郡 器興面 新葛里에 세우고 富谷과 陵谷, 城北에 貨物專用基地를 두기로 했다.

新工業都市·工團 확장보류...KID추기 유휴면적 많아, 3년간 地方工團에 投資해야

韓國開發研究院(KID)과 重化學工業企劃團은 정부가 新工業都市 건설 및 大規模 工業團地의 확장을 위한 新규 투자를 일체 保留, 향후 2~3년간은 中小都市의 地方工業團地 확장을 위한 新규투자에 집중하는것이 바람직하다고 건의했다.

7월 7일, 위의 두 기관이 合同으로 新行政首都建設의 사회·경제적 타당성 研究를 위해 6월 중순 新工業都市 건설현장을 시찰하고 제출한 보고서에서 이같이 건의하고, 정부가 막대한 投資로 추진한 大規模 工業團地에 유휴면적과 시설이 상당히 많다고 지적했다.

또 半月·昌原·龜尾 新공업도시와 麗川 배후도시들이 생활에 필요한 학교·수퍼마켓·路道·환경위생시설 등 社會서비스施設이 정비되지않았기 때문에 계획대로 入住가 진행되지못하고 있다고 지적, 工場과 아파트만 연결하면 취업자가 入住한다는 사고방식은 시정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아파트地區 指定등도 環境廳長 협의 거쳐야 “환경보전법 시행령”改正案 확정

7월 9일 정부는 환경보전법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국무회의에 상정하였다. 이 개정안에서 環境保全法 제5조에 정한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사업으로, 都市開發·工達造成·道路建設 등 외에 △鐵道(地下鐵포함)의 건설, △空港(군용비행장은 제외)의 건설, △干拓 및 港淨浚渫, △아파트地區의 指定 및 開發을 추가하였다.

이같이 環境保全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은, 그 계획을

수립하는 △行政機關의 長이 △그 계획안과 계획의 실시로 환경에 미치게될 영향의 豫測 및 評價에 관한 서류(環境影響評價書)를 작성, △미리 환경청장에게 협의를 요청해야 한다. 환경청장은 그 사업이 환경보전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될때에는 中央環境諮問委員會의 자문을 받아, 사업계획의 조정 및 보완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요청을 받은 行政機關의 長은 이에 상응한 조치를 해야 한다.

上半期成長率 -1.9%, 景氣 급속냉각 建設許可面積은 前年同期比 증가

7월10일, 경제기획원의 2·4분기 및 상반기 經濟動向報告에 의하면, 지난 上半期中 國內經濟는 1·4분기에 이어 2·4분기에도 마이너스成長을 기록, 지난 64년이래 16년만에 半期別成長이 마이너스 1.9%로 떨어지고 綜合景氣豫告指標가 70년이후 최하인 0.4로 下落함으로써 최악의 不況局面에 직면한것으로 분석했다.

建築部門 動向을 보면, 建築許可面積은 1·4분기에 前年同期比 28.4%가 증가하고, 2·4분기에도 10.4%가 증가했다. 그러나 前分期에 비해볼때 1월이후 계속 鈍化傾向을 보이고 있다.

東馬場市外버스터미널 10월 移轉 九宜洞 地下鐵2號線 江邊驛 東쪽으로

서울市는 현재 馬場洞에 있는 東馬場市外버스터미널을 오는 10월중으로 城東區九宜洞 地下鐵2號線 江邊驛 동쪽 埋地(11,000평)로 이전크로 확정하고 현재 터미널 廳舍를 設計中이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7월12일 九宜洞 일대 埋地 129,000평을 아파트地區 指定에서 해제하였다. 한편 用途地域 변경을 건설부에 신청중이다. 키 앞으로 九宜洞터미널을 이용하게될 市外버스는 江原道와 忠北·慶北 일부방면이다.

한편 서울시는 龍山과 佛光洞에 있는 市外버스터미널도 81년중 永登浦區堂山洞과 江南區良才洞에 남부터미널을 세워 이전시킬 계획이다.

仁川廢塩田에 200萬坪 工團 조성...國保委발표 83년까지 서울의 3,000中小工場 이전

國家保衛非常對策委 常任委는 仁川市南洞의 廢塩田지역 약 200萬坪에 工業團地를 조성하여 서울지역의 이전대상 中小企業을 이전하는 방안을 수립, 관계부처로하여금 이를 조속히 실시하도록 시달렸다고 7월14일 발표했

다.

國保委任委員은 또 서울 주택가에 있는 工場도 경기도 내 공업지역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방침을 세웠으며, 首都圈計劃에 의해 開發制限地域으로 묶여있는 廢塩田地域의 工業團地造成은 韓國輸出産業工團이 자체부담과 국민 투자기금의 지원을 받아 81년부터 83년까지 끝내 入住業체에 엽가로 분양토록 조치했다.

서울에 있는 用途地域 違反工場 7,559社중 3,151개社가 連차적으로 강제이전되어야할 처지이나 半月工團에 入住할 1,000개社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零細企業이라 이전이 극히 어려운 형편이다.

國保委는 “자금도 없고 이전할 공업단지도 구하기 어렵고 또 구한다 하더라도 기업여건상 너무 원거리이며, 지원없이 강제이전시키는것은 결과적으로 생계에 위협을 주게되기 때문”이라고 工團建設理由를 밝혔다.

새로 조성될 廢塩田工團의 규모는 半月工團 (전체용지 247만평, 공장용지 191만평) 정도가 될것으로 알려졌다.

組立式住宅 高層化를 기도—한성 현재의 5층에서 10층으로 技術問題 연구

7월15일 알려진 바에 의하면, 주식회사 한성은 組立式住宅의 高層化를 위해, 현재의 5층에서 10층까지 組立할 수 있는 技術의 問題를 연구하고 있다.

同社에 의하면, 지금 생산되고있는 PC재로서도 高층化 할수 있으나, 接合部の 構造強度·漏水處理등 技術적 問題가 해결되지않아 現단계로서는 6층 이상 아파트組立은 어렵다는 것이다.

都心圈 빌딩·商街 賃貸率 크게 떨어져 事務室 값싼 변두리지역으로 옮겨

7월15일 관련업계에 의하면, 계속된 불황으로 자금난을 겪고있는 기업체들이 事務室을 도심에서 변두리토역이나 생산공장으로 이전하고 있어, 구하기 어렵던 A급 빌딩들의 賃貸率이 80%선에 그치고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賃貸料도 울들어 각종 인상요인에도 불구하고, 작년과 같은 수준인 坪當保證金 28만원, 月賃 2만8천원선을 유지하고 있다.

또 南大門市場과 東大門 廣藏市場등 도심지 商街 역시 판매부진과 자금난 때문에 상인들이 점포를 처분하는 사례가 부쩍 늘고 있으며, 明洞등 시내중심가의 賃貸百貨店들도 휴폐업 점포들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竣工未畢건축물 곧 救濟조치

용적율 60%이하 住宅, 過怠料도 징수

7월16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 “竣工未畢觀存 建築物整理에 관한 特別措置法施行令”은 80년1월4일 이전에 완공된 住宅에 한해 建築法 위반정도가 경미한것을 일정한 심사를 거쳐 竣工畢證을 교부하기로 했다.

이 조치에 따라 구제받을 수 있는 주택은 해당 토지의 容積率이 60% 이상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건축물 제한 높이의 60% 이상을 넘지않거나, 해당 건축물이 都市美觀 및 都市計劃事業의 시행에 지장을 주지않는 것이어야 한다.

대통령의 재가를 얻어 곧 施行에 들어갈 이번 조치는, 구제되는 住宅의 違反정도에 따라 過怠料를 징수하게 되는데, 容積率·建蔽率의 경우 초과되는 비율이 10% 미만은 동당 20만원, 10% 이상은 30만원, 높이제한 위반의 경우 10% 미만은 5만원으로 되어있다.

海外建設輸出 활발, 올해 71億달러線

목표보다 19%증가 예상, 기능공 2万추가 就業

7월22일 건설부에 의하면, 지난 7월 10일 현재, 海外建設受注額은 작년 同期実績 30억4,300만달러에 비해 4.7%가 증가된 31억8,600만달러에 달했으나, 下半期에 契約이 예정된 공사가 31억7,400만달러에 이르고, 기타 受注万能分을 합하면 금년 總受注展望은 目標對比 19% 늘어난 71억4,200만달러에 달할것으로 전망된다는 것이다.

건설부는 海外建設의 지속적인 受注로 금년 下半期의 建設技能工 2만명이 신규 송출되어 연말에 海外建設工 事現場 進出入力은 13만명에 달할것이며, 금년 海外建設 外貨稼得은 20억달러 수준에 이를것으로 보고 있다. 人 既受注額 31억8,600만달러를 지역별로 보면 9.5%인, 29억1,400만달러가 中東地域이며, 사우디아라비아에는, 70개 업체가 64건의 공사를 수주, 전체 受注額의 68.3%, 中東지역 수주액 74.7%의 수주실적을 올렸다.

都心の 建築物·公共施設物등 色彩規制 首都行政諮問委, 色彩分科委 구성

서울시는 7월22일, 首都行政諮問委員會 條例를 개정, 이 諮問委 산하에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色彩分科委員會를 구성했다.

이 위원회는 앞으로 都心の 新築 또는 増改築되는 建築物 또는 工作物 기타 都市公共施設物의 色彩에 대한 諮問에 응해 色彩를 선정해주게 된다. 또 이 위원회는 街路 또는 街路辺 造景에 대한 연구, 기타 市長이 요구하는 色彩와 관련된 業務에 대한 色彩選定과 調査·研究

를 하게 된다.

이날 色彩分科委員으로 위촉된 위원은 다음과 같다.

- △ 金世中(서울美大교수), △ 金正秀(延世大産大學院長)
- △ 金教滿(서울美大교수), △ 李信玉(梨大家政大교수)
- △ 朱鍾元(서울工大교수), △ 姜明求(中央大교수),
- △ 韓道龍(弘大美大教授)

4,000만원 이하 工事, 中小業者만 受注

금년도 建設工事都給下限 설정 - 건설부

정부는 中小建設業체를 보호육성하기 위하여 建設工事의 都給下限線을 설정, 件當 工事額이 4,000만원 미만인 공사는 中小建設業체만이 受注할 수 있도록 하고 大建設業체는 이를 도급받지 못하게 규제, 7월23일부터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이 기준은 115개 大業체들의 都給下限線을 都給限度에 따라 15個群으로 나누어 설정하고 最高都給限額 業者(現代建設)의 都給下限線을 3억원으로 잡고 都給限度에 따라 그 下限線을 정한것이다.

건설부는 그러나 특수공사와 장기계속 공사등은 이 규제에서 제외키로 했다.

都給下限 規模別 業체數

群	都給限度額(억원)	業체數	都給下限額(천만원)
	40미만	339	-
1	40 이상 100미만	22	4 미만
2	100 " 200 "	14	5 "
3	200 " 300 "	7	6 "
4	300 " 400 "	1	7 "
5	400 " 5 00 "	5	8 "
6	500 " 600 "	2	9 "
7	600 " 700 "	3	10 "
8	700 " 880 "	2	11 "
9	800 " 800 "	1	12 "
10	900 " 1,000 "	2	13 "
11	1,000 " 2,000 "	2	14 "
12	2,000 " 3,000 "	-	18 "
13	3,000 " 4,000 "	-	22 "
14	4,000 " 5,000 "	1	26 "
15	5,000 " "		30 "
計	총 업 체 수	514	-

人間접촉이 가능 미니學校 建立에도 力点

大量教育 止揚, 過密學級도 빨리 줄일터 - 李文教

李奎浩 문교부 장관은 7월24일, "취학전 아동교육을 강화하고 大都市의 過密學級과 大規模學校를 빠른 시일 안에 줄이는 방향으로 文教予算을 배정하고 있으며, 人間과 人間の 접촉이 가능한 미니學校 建設을 위해 學校施設基準令을 고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의 경우 이미 3개의 미니學校(分校)가 81학년도 개교를 목적으로 건설중이다. 이들 分校는 ▲ 서울천호국교 천호分校(12학급) ▲ 구천국교 하일분교(12학급) ▲ 마천국교 장지분교(15학급)이다.

문교부는 서울등 大都市의 過密學級과 過大規模學校를 해소하는데는 垆地買入등에 너무많은 예산이 들어, 아파트등 住宅地에 1~200명 정도의 垆地를 買入, 分校形式으로 學校를 세울 방침이다.

서울시, 새建築條例를 공포

일부 규정은 종전보다 완화

서울시는 7월24일, 종전의 風致 美觀空地·아파트地區의 建築條例, 災害危險地區內 建築制限條件등6개建例 建築條例"를 국무총리실의 승인을 받아 공포했다.

새 條例중 종전과 달라진 점은, 風致地區內 垆地面積의 최소한도가 종전의 약 212평(700m²)에서 약 182평(600m²)으로 완화되었고, 地區指定 이전에 분할된 垆地나 垆地造成에 관한 제한을 받지않는 垆地의 최소 한도는 약70평(230m²)이다.

風致地區內 學校의 容積率은 100% 이하로, 높이는 5층 이하(20m이하 단 海拔 50m이하 구역에 한함)로 바꾸었다.

美觀地區內의 注油所는 종전과 같이 1, 4종 미관지구 내에서는 안되며, 自動車關聯施設도 미관지구내에서는 안되나, 다음 경우는 예외로 되어있다. ① 1, 4종 美觀地區로부터 직선거리 1km이내(기존시설 이전의 경우는 500m이내)에 2, 3, 5종 美觀地區가 없는 경우 ② 美觀地區 指定 이전의 기존시설을 지하화하여야 할 경우 ③ 都壳市場, 農産物, 畜産物, 水産物, 專用販賣施設,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는 空港, 운동장 및 외곽 지역에 위치한 自動車停留場내에 설치할 경우.

한편 造景에 관한 새로운 條例規定도 신설되었는데, 造景樹種 및 數量 기준에 있어 喬木은 m²당 0.3그루 이상 灌木은 m²당 0.4그루 이상이며, 교목과 관목의 비율은 6대 8이다.

1,000평 이상 土地, 細分화를 억제

共同住宅 대량건설을 가능케· 건설부

7월30일 건설부에 따르면, 앞으로 전국 都市地域의 土地利用計劃이나 都市計劃의 재조정을 통해 大規模宅地의 細分화를 강력히 억제키로 방침을 세웠는데, 이 방침은 都市地域 宅地의 부족현상을 극복키 위해서는 아파트나 聯立住宅 등 共同住宅의 대량건설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세워진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특히 1,000명 이상의 대규모宅地를 작은筆地로 분할하는것을 강력히 억제키로 하고, 이를 위해 앞으로 있을都市計劃區域 再整備事業이나 土地利用計劃의 再調整 등을 통해 구체적인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78년 현재 전국 36개 都市의 住居地域 가운데 아직 건축되지 않은 殘余宅地는 1억 1천274만평에 달하고 있으나, 이가운데 1,000명이 넘는 대규모宅地는 44.2%인 4천984만평에 그쳐 集團宅地의 부족이 두드러지고 있다.

한편 정부는 住宅의 규모·높이·도로·공공시설 등의 균형있고 조화있는 배치를 위해 1,000명 미만의宅地라 하더라도 土地所有者 마음대로 무질서하게 細分되는 것을 억제해나갈 계획이다.

연탄재 이용한 高強度 輕量骨材 개발-KIST 大型블록, 지붕의 輕量斷熱벽돌화도 시도

자갈 대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연탄재 輕量骨材가 개발되었다. 7월30일 KIST(科學技術研究所)에 의하면 동연구소 張性道(재료공학부장)·丁炯鎭(건축재료 연구실장) 박사팀에 의해 개발된 이 高強度 연탄재 輕量骨材는 연탄재 70~80%에 粘土와 소량의 鈹物性 發泡劑를 혼합한 후 骨材모양으로 成球한다음 1,200원 回轉爐에서 가열하여 만들어진다.

이 輕量骨材는 현재 外國에서 粘土만으로 만든 輕量骨材보다 原價가 훨씬 저렴하며 무게가 자갈·모래의 절반 이하로 줄며, 이를 이용한 벽돌은 斷熱效果가 커 에너지 절약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게 된다.

이 원리를 이용, 組立式住宅등에 필요한 大型 블록과 지붕을 輕量斷熱벽돌화시키는 것도 거의 研究를 마무리 지었는데, 이것이 實用化되면 單獨住宅의 지붕, 아파트 등의 외벽 등에 유리하게 活用될것이라 한다.

年平均 經濟成長率 8%, 1인당 GNP4,201달러 정부, 5次 5個年經濟社会發展計劃案 수립

7월31일 경제장관 협의회에서 의결된 『제5차 5個年經濟社会發展計劃』에 따르면 經濟成長率은 4次計劃期間(77~81년)의 6.9%(추정치)보다 1.1%가 높은 8.0%로 잡고, 鈹工業成長率은 이보다 2.2%가 많은 10.2%로 설정했다.

또 1인당 國民所得은 올해 추정되는 1,607달러에서 오는 86년말에는 2,584달러가 늘어난 4,201달러로 책정했다.

都売物價上昇率은 연평균 9.0%에서 억제시켜 4.차計

劃期間중 18.4%보다 9.4%를 낮게 잡았다.

海外進出 禁止되던 19개 職種을 해제-노동청

勞働庁은 8월 1일, 海外人力送出節次를 대폭 간소화하는 한편, 지금까지 海外進出이 금지되었던 重機操縱員등 19개 직종을 해제하고, 航空機操縱員등 22개 직종의 해외진출 제한도 완화했다.

또 中東地域에 대한 개별 취업도 중단되어 왔으나 앞으로는 勞務官이 파견 되어있는 나라나 修文口에 대해서는 남성취업자의 개별취업도 허용한다.

海外就業制限이 해제된 19개 직종은 다음과 같다.

△ 重機操縱員, △ 重裝備整備工, △ 塗裝工, △ 리벳工 △ 熔接工, △ 裝缶工, 機械組立工, △ 保溜工, △ 工場配管工, △ 計裝工, △ 潛函工, △ 보일러設置工, △ 工作機械工, △ 通信工, △ 타일工, 닥트工, △ 웰포인트工, △ 大理石工, △ 什長

베네엘라, 建設輸出市場으로 유망

84년까지 庶民住宅 60萬戶 건설 계획

8월 2일 海外建設協會의 조사에 따르면 막대한 石油收入(1일 194만 배럴 수출)과 外國의 商業借款으로 開發資金을 조달하고 있는 베네수엘라는 올해부터 오는 84년까지 매년 34억달러씩 모두 160억달러를 투입, 庶民住宅 60만동을 건설키로 했다.

베네수엘라는 이와 관련, 投資財源과技術人力이 부족할것으로 보고, 外國業體의 進出을 기대하고 있어, 우리 建設業體의 진출이 유망시되고 있다. 베네수엘라 住宅建設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都市開發 및 住宅建設事業 감독 기관인 都市開發省에 建設業者登錄을 필하고 주요 발주처인 住宅庁과 交通省에 업주등록을 마쳐야 한다.

한편, 우리나라 건설업체들은 栗山建設이 지난 78년 200棟의 組立式住宅 建設資材를 납품한 바 있고, 그후 雙龍·三豐·韓國建業·京南企業 등이 外國業體들과 合作進出을 추진하고 있다.

不良住宅 철거 억제, 撤去보다 改·補修 치중 都市再開發事業도 住民 2/3 同意할때만

國家保衛非常對策常任委員會는 8월 2일, 國民住居生活의 安定을 위해, 현재의 지나친 不良住宅의 철거를 억제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關係部處에 시달렸다.

그 시달내용은 ▲不良住宅改良 및 都市再開發事業의 경우, 住民 2/3 이상의 同意없이는 事業執行을 하지 못

하도록 하고 ▲農村住宅 改良의 경우도 住民의 자발적인 改良에 한하여 事業을 執行하여, ▲이러한 사업과 관련한 住宅撤去는 별도 지침이 시달될때까지 즉시 중단하도록 했다.

이 기본지침은 또 住宅 2/3 이상의 同意를 받은 不良住宅住宅改良 및 都市再開發事業의 사업집행 추진에 있어서도 ▲충분한 補償과 移住對策을 먼저 세운후 추진하며, ▲가급적 단전철거보다는 改修 및 補修로서 住宅機能회복에 치중하고, ▲再開發地區의 住民生活에 필요한 최소한의 補修와 火災등 재해로 파손된 建물의 원상회복은 허용토록 했다.

이 지침은 이밖에 不良住宅改良, 都市再開發事業, 農村住宅改良事業과 관련 ① 80년도 사업으로 금년 7월30일 현재 이미 착수하여 90% 이상 철거완료된 사업, ② 50% 이상 철거완료된 사업으로 미철거주민의 90% 이상이 철거에 동의한 경우, ③ 철거대상주민의 90% 이상이 철거를 희망하는 경우, ④ 山沙汰·水害등 人命被害에 긴급한 위험이 있는 경우, ⑤ 國家政策執行에 긴급히 필요한 경우등은 住宅撤去를 허용, 사업을 추진토록 했다.

91년까지 住宅 506万户를 建設 年44万7千戶씩, 20坪 基準으로

8월 4일, 관계당국이 마련한 長期住宅建設計劃에 따르면, 정부는 처GNP 投資率을 현재의 3.6%선에서 6.1%로 높이고 81년에 31만호, 82년~86년 187.5만호 87~91년까지 287.5만호의 住宅을 建設, 住宅普及率을 76.5% (79년말 현재)에서 90.2%로 확대하고, 住宅規模도 평균 15평에서 20평으로 늘린다는 것이다.

또 이기간중에 建設할 住宅의 유형별 구성을 아파트 3

單獨住宅 7의 비율로 하여 아파트 151만호, 單獨住宅 355만호로 계획하고, 地域別로는 都市에 420.5만호, 農村에 85.5만호로 즉 8대2의 비율로 잡고 있다.

都市計劃 施行制度 대폭 改善

國保委 서울 4大門밖 高度制限도 철폐

國家保衛非常對策常任委員會가 8월 9일 발표한 都市計劃 公信力 회복과 民怨해소 방안에 따르면 △都市計劃은 5년을 주기로 조정(부득이한 경우 都市計劃 決定은 年2회 이하로 함)하고, △補償은 2개 이상의 鑑定機關으로 하여금 감정케하여 그 평균치의 金額을 지급하며 事業執行은 計劃決定 1년 경과후 시행하고, △各市道에 都市計劃 相談 및 閱覽室 설치, △決定된 計劃은 官報 게재 및 보도하는 한편, △都市計劃을 목적으로 하는 私有財產의 拘束은 반드시 법률에 의하도록 했다.

또 서울市 全域의 高層建物 高度制限은 4大門안을 제외하고는 전면 해제토록 했으며 4大門안도 專門人團의 검토후 法節次에 따라서 통제를 하도록 했다.

國保委는 또 앞으로 制度改善 및 研究方案으로 △都市計劃을 立案할때는 3회 이상의 公聽會와 住民參與의 義務化, △基本計劃 作成의 義務化, △道知事·市長·郡守 밑에 常設專門機構 설치, △年次別 執行計劃의 수립, △都市計劃 決定후 장기간 事業施行이 되지않는 경우 私有財產 活用制度 마련, △用途地域·地區의 細分化, △補償財產 확보책으로 開發利益 還収制度 수립, △中央에 都市計劃研究 常設機構 설치, △建築法을 建築基準法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國保委는 이같은 制度改善作業을 年末까지 끝내고 내년 都市計劃法을 대폭 개정할 방침이다. ■